

### 승덕고 '지역사회 봉사의 날' 행사



승덕고(교장 윤세웅)는 최근 태백산맥 문학관을 비롯해 5·18 기념공원, 신창동 유적지 등 광주·전남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이는 '지역사회 봉사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승덕고 제공>

### LG이노텍 대인시장 1000원식당 지원



LG이노텍(대표 이용범)이 뉴프레스와 오알캠 등 협력사와 함께 최근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해드는 식당(1000원 식당)을 방문해 운영 지원비 300만원을 전달했다. <LG이노텍 제공>

### 광주도시공사 임직원 정신건강 교육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웅준)는 최근 빛고을고객센터 13층 대회의실에서 도시공사 임직원을 비롯한 콜센터 직원 100여명에게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했다. <도시공사 제공>

### 김연숙씨 가족 '광주 우리말 겨루기' 대상

광주시에 올해 처음 열린 '우리말 겨루기 한마당'에서 김연숙(41·광주시 북구 일곡동·사진 왼쪽)씨 가족이 대상을 차지했다. 금상은 김평석(53·서구 화정동)씨 가족이 받았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569돌 한글날을 기념해 열린 '우리말 겨루기 한마당' 행사에서 김연숙씨 가족을 비롯한 5개 팀이 금상과 은상, 동상을 수상했다. 김연숙씨는 독서와 퀴즈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아들과 출전해 대상과 상금 60만원을, 김평석씨 가족은 금상과 상금 30만원을 받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같은 처지의 동포 도울 수 있어 힘든 줄 몰라요”

## 고려인마을 소식 전하는 '나눔방송' 김엘레나 기자

“작은 힘이지만 동포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우리 동포들 돕는데, 힘들다고 포기할 수 있나요?”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의 김엘레나(여·35)씨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고려인이다. 지난 2012년 엄마와 단둘이 광주에 정착했다. 광주 시월병원에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같은 처지에 놓인 고려인들을 돕기 위해 고려인마을의 한국어 교사이자 '나눔방송'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 통역사이자 한국어교사 활동

## 지금은 호소성 기사 많지만

## 도움받은 만큼 베풀고 싶어

주일에 2~3개의 기사를 꾸준히 게재하고 있는 그녀는 “고려인마을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야기 등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항상 어려운 현실에 놓인 고려인들을 도와 달라는 호소성 기사를 씁니다. 우리가 매번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큼 나눔을 주신 분들의 소식을 단 하나도 놓치거나 잊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새로운 삶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광주 고려인마을을 찾았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을 녹록지 않았다. 일일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봉투를 접거나 농사를 돕는 게 전부였다.  
우즈베크 타슈켄트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그녀였음에도 일자리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고려인마을의 도움을 받아 최근 자신의 전공을 살린 통역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녀는 “(제가) 광주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도움을 받은 만큼 나도 동포들을

위해 무엇인가 베풀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고려인들을 대신 해 시민기자를 자청한 그녀는 “생각보다 어렵다”고 했다. 이야기거리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일부터 취재 내용을 기사로 만들어내는 작업까지 '기자'라는 경험에 없는 그녀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머릿속에는 모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도 그걸 기사로 쓰려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비슷한 형식의 기사를 찾아보고 내용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짧은 기사 하나를 쓰는데도 4~5시간은 족히 걸립니다.”  
김씨는 기자 외에도 한국어를 전공한 자신의 재능을 살려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3차례씩 강의를 하는데, 한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유창한 한국어가 필수요건이라는 생각에 시작한 재능 기부다.  
또 고려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도움을 준 많은 시민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포함돼 있다.  
김엘레나씨는 “부족한 실력으로 쓴 기사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지금은 어려운 고려인 동포를 도와 달라는 기사만 쓰고 있는데, 도움을 받았던 우리 고려인마을이 반대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한글은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

### 한글교육 공헌 총리 표창 고홍 출신 신경호 고쿠시칸대 교수

“자연의 소리에서부터 기계음까지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한글 뿐입니다.”  
고홍 출신인 신경호(52) 고쿠시칸대학(國士館大學) 21세기 아시아학부 교수가 지난 9일, 569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한글 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신 교수는 “자연의 소리에서부터 기계음까지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한글 뿐입니다.”  
고홍 출신인 신경호(52) 고쿠시칸대학(國士館大學) 21세기 아시아학부 교수가 지난 9일, 569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한글 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신 교수는 지난 2002년 고쿠시칸대가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데 기여했다. 지금까지 1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이를 통해 한국어를 배웠다. 그는 일본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과 한국 방문을 이끌어내는 산파 역할을 해오고 있다.  
신 교수는 고려대를 비롯한 국내 5개 대학과 협정을 통해 한국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로부터 1200명이 한국어를 찾아 한국 문화와 언어를 체험했다.  
그는 지난 2010년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제어학대회에 2년째 일본 학생을 이끌고 참가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학생 13명과 함께 졸업여행으로 광주를 찾은 뒤 당시 전남대 행정대학원장이었던 오재일 교수와의 오랜 인연을 계기로 학생 교류를 시작했다.  
신 교수는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

르스)여파로 한국 방문객이 폭 끊겨 버렸을 때에도 그는 학생들을 설득했고, 그에 힘입어 30명의 학생이 이즈음 한국을 찾았다.  
일본 학생들이 이끌고 한국 방문에 나설 때면 직접 안내자가 되는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는 “때로 여행가이드 기능이 들 때도 없지 않다”며 “한국인의 뜨거운 피가 끓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국내 사정으로 인해 유학을 떠나야 했다.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나 돌아와보면 “민족정신이랄까, 조국을 생각하는 남다른 의지 같은 게 충만한 시절이었다”고 회상했다.  
그에게 우리말과 글은 그 열정을 쏟아부어 지켜내고 키워낼 대상이었다.  
신 교수는 “선조들이 물려준 소중한 자산인 한글은 의식주만큼이나 소중한 문화의 핵”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텃밭에서 기른 고구마·배추 이웃과 나눠요”

### 롯데 아울렛수완점 직원들 공터일궐 수확물 나눔봉사

“직접 기른 고구마를 캐서 이웃과 함께 나누니 힘든 줄도 모르겠네요.”



롯데아울렛수완점 직원들이 고구마를 쌓아 놓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아울렛수완점 제공>

지난 10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롯데아울렛수완점 인근의 작은 텃밭에서는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고구마를 캐고 있었다. 소풍물 옆 텃밭에서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아닌 롯데아울렛수완점 직원들, 평소 말쑥하게 차려입고 소비자를 맞던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정성껏 키웠던 고구마를 수확하는 기쁨으로 들떠 있었다.  
롯데아울렛 건물과 인근의 호수 공원 사이에 있는 이 텃밭은 애초 공터였다. 지난 2013년, 이 땅을 텃밭으로 일궈 수확물을 이웃과 나누자는 생각에 롯데아울렛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또 인근에 살고 있는 10가족에 텃밭 일부를 분양해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  
그렇게 지난해 이들 직원들은 660m²(200평) 남짓의 텃밭을 일궈 수확한 배추 800포기를 감장 담그기 행사를 통해 지역 내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이 텃밭에서 총 200kg

의 고구마를 수확해 이 중 23박스를 광산구정투게타광산나눔복지재단에 기부했다.  
봉사에 참여한 롯데아울렛수완점 남현실 대리는 “올해 고구마의 씨알이 굵고 실하다”며 “내 손으로 직접 기른 고구마가 어려울 이웃 식탁에 오르겠다는 생각이 마음 뿌듯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광산구 건강증진센터에서 주관하여 지역 장애우 10명을 초청하여 고구마 캐기 체험행사도 진행했다.  
롯데아울렛수완점 문연배 점장은 “많지 않은 양이지만 재배된 작물을 지역 내 복지시설에 기부하여 사랑 나눔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었다”며 “연말을 앞두고 뜻 깊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모여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홍세영(전 한국전력)·강순동씨 아들 현창(교보생명)군 문영홍(농협 여수시지부장)·김선화씨 딸 향양=17일(토) 오후 2시 여수 히든베이호텔 웨딩홀.  
▲이민래(웨브래)·양승희(효천초 교장)씨 아들 세영군 남상영·정미양씨 딸 연희양=25일(일) 오후 1시50분 광주시 서구 벽진동 제이아트웨딩컨벤션 3층 알루체홀.

### 종친회

▲문화회씨 하정공파 광주종친회(회장 류재균)=12일(월) 오후 6시30분 광주시 동구 대인동 백운산회관 062-222-4569.  
▲경주배씨 달성판서공파(회장 배석우)조 배연상장군 추앙대제=12일(월) 오전 11시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산 60번지 연화사(蓮花祠·지리산휴게소에서 약 30분).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이화회 월례회의=13

일(화) 오후 6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경주배씨 광주종친회 월례회의=15일(목)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대인동 심성한 민어·전어 회관 010-8623-4949.

### 동창회

▲광주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임채욱) 한마음 큰잔치=18일(일) 오전 9시 광주공업고등학교 운동장 문의 062-511-1946.  
▲승원고등학교 총동문회 한마음대축제=18일(일) 오전 8시30분 승원대학교 운동장 문의 062-384-7447.  
▲광주 북성중학교 총동창회 제40회 한마음대축제=24일(토)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광주 북성중학교 잔디구장(우천시 체육관) 062-523-1300.

### 알림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성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을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광주동물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시 서비스(주 5일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 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

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동반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 모집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토리 창작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스토리 관련 기업인·작가·작가 지망생, 주소지가 전남인 누구나 가능, 14일까지 모집, 문의 061-280-7044.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문제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 부음

▲정순애씨 별세 한신원·회원(한희원 미술관 관장)·복원·조자·신애씨 모친상=발인 12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장 제1분향소 062-231-8901.  
▲임근임씨 별세 김영애씨 모친상=발인 12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p><b>삼가 故人之冥福을 빕니다</b></p>	
<p><b>210호 故전이옥 님 (여/97세)</b>          子/子婦: 강재원/이낙은, 유원/김숙자, 수원/최영애          진원/곽현자, 광원/정영순          女/婿: 강우순/박재귀, 영순/김영선          *발 인: 10월 12일          *장 지: 월남동 선영 *연락처: 227-4381</p>	<p><b>301호 故배정태 님 (남/77세)</b>          子/子婦: 배영진/오민영, 영복/최연희          女/婿: 배옥순/한동복, 옥자/김일환          未亡人: 신명자          *발 인: 10월 13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2</p>
<p><b>401호 故박계중 님 (남/82세)</b>          子/子婦: 박영민/김수남, 영호/이영희          女/婿: 박은희/최수성          未亡人: 유복실          *발 인: 10월 12일          *장 지: 월남동 선영 *연락처: 227-4383</p>	<p><b>402호 故김두석 님 (남/78세)</b>          子/子婦: 김재민/이금희, 재성/김정민, 일수/황미주          女/婿: 김은희/이희균, 은자/남나식, 은남/이상희, 은인          孫: 정영순          *발 인: 10월 13일          *장 지: 화순 청동 선영 *연락처: 227-4384</p>
<p><b>101호 故지충진 님 (남/75세)</b>          子/子婦: 지현직/김구만, 현중/조재희          女: 지명선          *발 인: 10월 12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p>	<p><b>102호 故이준근 님 (남/82세)</b>          子/子婦: 이만석/영경민, 성림/김정민, 성숙/제인경, 성민/임성운          女/婿: 김은순/김석우, 명순          未亡人: 지선림          *발 인: 10월 13일          *장 지: 화순 동면 선영 *연락처: 227-4386</p>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